

재일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

해역연구의 관점에서*

Reconsidering Researches on Koreans in Japan

and Sea Region Studies: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최민경 (Choi, Minkyung)**

목차

- I. 들어가며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재일한인연구의 동향
- IV. 재일한인연구와 해역: 새로운 과제모색
- V. 나오며

국문제요

1990년대 이후 국내 재일한인연구의 성장과 더불어 이들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제시하려는 시도도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도 있는 과제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와 해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앞으로의 재일한인연구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해역은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초국가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분석 대상과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실질적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시작하는 교류 네트워크이다. 이를 통해 재일한인의 보다 다양한 이동성과 지역성을 검토함으로써 재일한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 연구교수 (minminchoi@pknu.ac.kr)

이 지나는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해역, 초국가성, 네트워크

I. 들어가며

20세기 전반기 진행된 제국 일본의 팽창과 패망은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분단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재일한인의 역사는 형성되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재일한인의 역사와 더불어 관련 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1980년대 이전 재일한인연구는 대부분 일본인 또는 재일한인 연구자에 의해 ‘일본에서’ 이루어졌다.¹⁾ 한편 국내의 경우,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과의 교류는 재개되었지만 재일한인연구는 “정책적, 도구적 논술만이 압도적인 양으로 발표되었을 뿐”이었다.²⁾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북송사업, 교육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동포 정책을 펼치고 있던 북한의 존재는 큰 자극이 되었으며, 다양한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재일한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관련 연구 또한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고³⁾ “재일한인 집단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실질적인 삶의 과정을 서술한 본격적인 연구물은 극히 제한된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을 뿐이었다.⁴⁾

결국 국내의 재일한인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은

-
- 1) 임영언·김태영, 『재일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화자원으로서 연구사 고찰 : 1945년 이후 재일코리아 관련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통권50호(2011.5), p.354.
 - 2) 정병호, 『해외한인사회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일한인사회』, 『민족과 문화』 통권4호(1996.12), p.117.
 - 3) 임영언·김태영, 전계논문, p.360.
 - 4) 정병호, 전계논문, p.117.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양적 증가는 질적 수준의 제고로도 이어져 보다 다양한 분야, 대상, 시점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 재일한인연구의 성장 속에서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분석하는 작업도 시작되었다. 다양한 연구가 계속해서 축적되는 가운데 이들 연구의 주제, 방법론, 시각 등을 전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재일한인연구에 대한 통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를 찾아 이어 보다 활발하고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일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분석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새롭게 정리,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민국가를 ‘당연히’ 자연스러운 단위로 인식하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methodological nationalism)⁵⁾을 극복하는 재일한인연구를 위하여 디아스포라와 해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관련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II. 선행연구 검토

예외적으로 1990년대에 출판된 정병호의 연구⁶⁾를 제외하고는 201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일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부분적으로 재일한인연구사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임영언·김태영, 김진환, 정영미·이경규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임영언·김태영

5) Andreas Wimmer and Nina Glick Sc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7, No.3(September 2003), pp.576-610.

6) 정병호, 전개논문, pp.106-144.

의 연구는 재일한인연구를 디아스포라의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해방이후 연구 성과를 사회과학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다. 이 연구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흐름을 다루며, 한일 양국의 연구 성과를 포괄하나, 주요 논저를 자의적으로 선택, 분석하였으며, 10년 단위의 기계적인 분석 시기 구분을 한다는 한계가 있다.⁷⁾ 다음으로 김진환의 연구는 재일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한민족공동체론’과 ‘탈민족 디아스포라론’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 연구는 정체성에 특화하여 연구사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대부분 200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만을 다루고 있어 통시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⁸⁾ 마지막으로 정영미·이경규의 연구는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룬 국내 재일한인연구에 대한 주제 키워드의 출현빈도 및 네트워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1,300여건의 연구를 대량 분석하였다는 의미는 있지만, 한편으로 키워드에만 주목함으로써 실제 연구내용은 단편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재일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다룬 기존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동향의 정리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심도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환의 연구가 복수의 방법론을 결합한 연구의 필요성,¹⁰⁾ 정영미·이경규의 연구가 연구주제의 확장을 언급하는 정도인데,¹¹⁾ 이는 추상적으로 재일한인연구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그치며 구체적으로 어

7) 임영언·김태영, 전계논문, pp.353-368.

8) 김진환, 「재일조선인 정체성 연구 현황과 과제」, 『한민족문화연구』, 통권39호(2012.2), pp.373-404.

9) 정영미·이경규,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 연구동향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통권62호(2018.12), pp.415-437.

10) 김진환, 전계논문, pp.373-404.

11) 정영미·이경규, 전계논문, pp.415-437.

떻게 어떠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재일한인연구의 심화와 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디아스포라와 해역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는 과거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등의 이산의 역사와 관련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제적인 인구가동이 활발해 지면서 이러한 현상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의식 및 문화 변화를 아우르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새롭게 디아스포라로 ‘탄생’한 집단도 많은데, 디아스포라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들은 국민국가로부터 ‘해방’된 존재, 국민국가를 ‘초월한’ 존재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¹²⁾ 물론 ‘해방’과 ‘초월’이 국민국가와의 관계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디아스포라는 어디까지나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각구도 내에서 이해” 될 수 있다.¹³⁾ 단, 정주국과 모국을 동시에 살아가는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디아스포라의 의식과 문화가 오래 동안 가장 자연스럽게 불변의 것이라고 여겨져 온 국민국가라는 인식 단위를 의문시하고 상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는 ‘삼각구도’ 속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 온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일한인, 나아가 디아스포라의 삶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해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역은 “‘국가’ 단위로 구분해 이해할 수 없는 개체로서의 바다 세계”,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자연지리적인 용법과 달리 “인간이 생활하는

12) James Clifford,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Vol.9, No.3(August 1994), pp.302-338.

13)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통권14호 (2016.2), pp.22-49.

공간으로서의 바다”, “사람과 물품, 정보가 이동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바다”를 말한다.¹⁴⁾ 이 개념은 육지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역사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육상 국가와 국가의 ‘경계 지역’에 있고, 국가, 종교, 문화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동과 생활을 위한 ‘공유의 장’이자 동시에 보다 넓은 범위, 원격지에 걸친 ‘만남’과 ‘교류’의 주요 무대”에 주목한다.¹⁵⁾ 즉, 해역은 바다와 관련된 인간 활동의 범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민국가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 특히 이주를 통해 복수의 국민국가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디아스포라야 말로 해역에서 전개되는 국민국가를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와 관련하여 해역에서 펼쳐지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 해역에는 디아스포라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인류 역사 상 오랜 기간 대규모의 이동 수단이 되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선박이다. 특히, 근대 이후 디아스포라 발생에 있어서 항로개설과 기선운항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역을 통한 이동 구조와 경험은 국민국가를 넘나드는 존재로서의 디아스포라의 탄생,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해역에는 국민국가를 가로질러 디아스포라의 실질적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시작하는 교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디아스포라는 어디까지나 모국 및 정주국과의 삼각구도 내에서 이해

14) 羽田正, 조영현·정순일 역, 『바다에서 본 역사 : 개방, 경합, 공생 : 동아시아 700년의 문명 교류사』(서울: 민음사, 2018), p.24.

15) 家島彦一, 『海域から見た歴史』(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p.3.

하여야 하지만, 디아스포라와 모국, 디아스포라와 정주국의 관계가 실제 구현되는 공간은 지역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역사적, 그리고 현재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삼각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의 유입과 정착 과정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성, 그리고 모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검토함으로써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겠다.

Ⅲ. 재일한인연구의 동향

1. 분석자료와 기초적 통계 해석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삼은 재일한인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를 통해 검색한 1990년대 이후,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의 국내학술지논문이다. 이와 같이 분석 자료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사이트 중, RISS가 기타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사이트 중 일부를 아우르며 가장 많은 학술정보를 소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논문만 분석하였다. 단행본은 기출판 논문을 엮거나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경우도 많아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 세미나 등 발표 논문은 추후 완성된 논문으로 출판될 가능성이 커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셋째, 검토 대상 시기를 1990년대 이후로 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재일한인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만 분석하였다. 이는 재일한인이 가지는 디

아스포라적 특징을 해역에 전개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검토한다는 실증적인 관점에서 연구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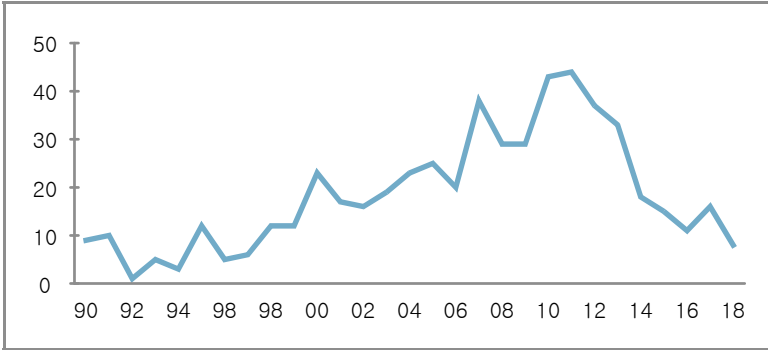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대상 범위의 재일한인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인¹⁶⁾, 자이니치(在日)라는 복수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호칭은 모두 영어로 하면 ‘Koreans in Japan’ 으로 간단하고 비교적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로는 왜 이처럼 다양한 호칭이 경합하는 것일까. 이들 호칭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Koreans’의 표현 방법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즉, 민족과 국가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는 “식민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역사적 조건들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조건은 “한국과 일본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위치 짓는 자기 해석의 과정”과도 연관되므로 다양한 호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⁷⁾ 결과적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호칭 선택은 시기, 학문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를 망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6개의 키워드를 모두 사용하여 재일한인연구를 검색하였다.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출판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학술지에 출판된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의 재일한인연구는 총 539건이다 <그림1>. 이는 1959년부터 1989년까지 30년에 걸쳐 이루어진 관련 연구가 48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출판된 재일한인연구는 75건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대는 282건으

16) ‘한인’을 영어로 번역한 ‘코리안(Korean)’, 즉, 재일코리안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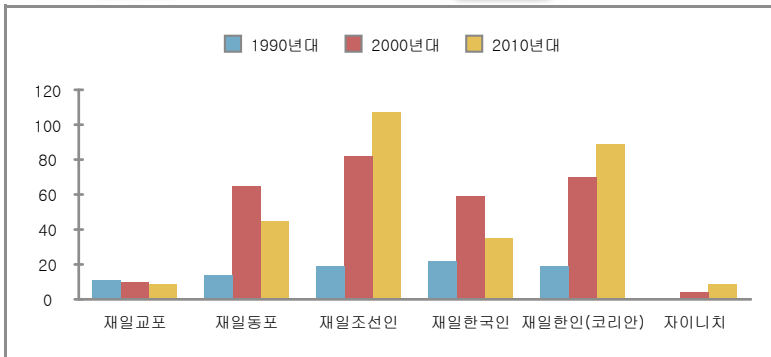
17) 정진성, 『‘재일동포’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통권7호(2012.8), pp.259-260.

<그림1> 1990년대 이후 재일한인연구 출판건수 추이



로 급증하였다가 2010년대(2010년-2018년)에 들어서는 182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추이는 한일관계의 부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본관련연구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2> 재일한인연구 검색어 변화 양상



다음으로 이들 연구가 재일한인을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 중 어느 것으로 검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전 시기를 통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재일조선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¹⁸⁾ 첫째, 연구대상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역사적 연구의 경우 재일조선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역사적 연구가 아닐지라도 재일한인 스스로 이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그들의 차별경험을 직시하는 역사성 있는 개념”이라 여기므로, ‘당사자성’을 존중하는 연구자들이 이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이 압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호칭의 경우, 최근 들어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증가하고 있는 것 두 그룹이 있다. 우선 최근 들어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호칭에는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국인이 있다. 실제 이들 용어는 한국 정부의 문서, 홈페이지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호칭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국인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호칭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재일한인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한국 정부에 의한 재일한인의 전략적 동원 또는 배제의 맥락에서 사용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즉,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국인이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모국의 입장에서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명확하게 의식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일한인(코리안)과 자이니치는 2010년대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숙인의 경우는 재일한인에 대한 명칭이 매우 다양하고 각기 다른 정치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지향과 무관히 다만 종족적(ethnic) 귀속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재일조선

18) 정진성, 상계논문, p.280.

19) 정진성, 상계논문, pp.275-279.

인이 적합하지만 “한국 내에서 ‘조선’이라는 용어의 정치적 ‘오염’” 때 문에 재일조선인과 같은 의미로 재일한인을 선택하였다고 밝힌다.²⁰⁾ 장 인성은 재일한인을 지칭하는 다른 호칭들은 “그렇게 부르는 측의 감성과 그렇게 불리는 측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객관화”가 가능한 호칭으로 재일한인을 사용한다.²¹⁾ 한편, 자이니치의 경우는 재일한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어떠한 형태의 귀속도 포함하지 않고 ‘일본에 있음’ 만을 표현한다. 이러한 “민족이나 국가 색의 소거는 ‘국민국가’인 일본을 상대화하는 작업”이자 “국민국가 단위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국민국가에 수렴될 수 없는” 재일한인의 특징을 반영한다.²²⁾ 그리고 이처럼 최근 재일한인연구에서 이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 중 재일한인과 자이니치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일한인을 디아스포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기존연구의 내용 분석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국내학술지에 출판된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의 재일한인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 본 연구에서는 재일한인 또한 하나의 사회집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사회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사회집단 자체에 대한 고찰, 그리고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일한인 관련법과 제도, 재일한인 커뮤니티 형

20) 권숙인, 『귀속과 정체성의 분화와 통합: 변모하는 재일한인사회의 지평』, 『한일공동연구총서 17』 한·일 사회의 중심과 주변(2007.12). pp.280.

21) 장인성,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제12권제4호(2003.12), p.27.

22) 이한정, 『“자이니치” 담론과 아이덴티티』, 『일본연구』, 통권17호(2012.6), p385.

성 및 전개, 재일한인의 의식과 문화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재일한인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법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변화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재일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른바 ‘91년 문제’²³⁾를 둘러싸고 재일한인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정인섭, 이광규의 연구는 ‘91년 문제’ 타결 시한 직전에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루어진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합의내용을 검토하고 그 합의내용이 25년 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일한인의 보다 안정적인 법적지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²⁴⁾ 한편 ‘91년 문제’가 타결된 이후에는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⁵⁾

둘째,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지방참정권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1995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이

23)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협정영주권이 부여되면서 일차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3세 이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보완 시한을 1991년 1월 16일까지로 두었다. 즉, ‘91년 문제’는 재일한인 3세 이하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중심으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전반의 한층 더한 안정화를 모색하는 문제로 여기에는 조선적 재일한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문제도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1991년 1월 10일 양국 외무장관의 각서 교환을 통해 재일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세대를 거치더라도 계속적으로 특별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4) 정인섭,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그 운영의 25년의 회고』, 『재외한인연구』, 제1권 제1호(1990.12), pp.17-34; 이광규, 『재일한인과 지문제도』, 『사회와 역사』, 통권23호(1990.8), pp.111-131.

25) 박병윤, 『남북의 UN 동시가입과 재일동포의 역할: 『91년 문제』의 총괄과 분단구복을 위하여』, 『재외한인연구』, 제2권제1호(1992.12), pp.79-116; 김광열,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 1991년 “특별영주”제도를 중심으로』, 『한일 민족문제연구』, 통권6호(2004.6), pp.37-91.

러한 움직임은 국내 재일한인연구동향에도 영향을 미쳐 김성호의 연구²⁶⁾를 시작으로 꾸준히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재일한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일본 국적취득제도의 문제점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연구²⁷⁾ 유럽 등의 사례를 들면서 재일한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의 당위성을 논하는 연구²⁸⁾ 일본에서 유일무이하게 기본정책으로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를 내세운 민주당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연구²⁹⁾ 등이 있다. 한편,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가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주민의 지역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적인 제도인 자문회의의 기능과 의미를 검토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³⁰⁾

셋째, 2005년 8월부터 이루어진 1965년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날 재일한인 법적지위의 원형을 만든 1965년 ‘재일교포 법적지위 협정’의 교섭 과정, 내용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이다. 우선, 장박진, 이성의 연구는 1965년 한일협정의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한일회담 중 특정 시기의 교섭 내용에 주목하여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를 검토하였다.³¹⁾ 한편, 신재중, 이성의 연구는 각각 재일

26) 김성호, 『재일코리안 지방참정권 문제의 현상과 전망』, 『평화연구』, 통권8호 (1999.3), pp.37-53.

27) 김경득, 『정주외국인과 지방참정권: 재일동포에 있어서 국적과 지방참정권이란』, 『공익과 인권』, 제2권제1호(2005.2), pp.1-14.

28) 김부찬,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 제13권제1호 (2007.2), pp.1-31.

29) 김태기, 『일본 민주당과 재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9호(2010.12), 235-277.

30) 이시재, 『일본의 외국인 지방자치 참가문제의 연구: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 대표 자회의의 성립 및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제1호(2003.3), pp.21-44; 한승미, 『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민족시민(ethnic citizen)”』: 동경도 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예의 함의, 『한국 문화인류학』, 제43권제1호(2010.1), pp.263-304; 이상봉, 『일본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2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민족문화』, 통권65호(2017.11), pp.63-95.

한인의 한국으로의 재산반입정책과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 및 한일협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³²⁾

다음으로 재일한인의 커뮤니티 형성 및 전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이다. 재일한인의 역사는 일본사회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획득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들의 사회운동은 커뮤니티의 형성, 유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일한인의 사회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분석 대상 시기에 따라 크게 해방이전과 해방이후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투쟁을 위한 단체조직 및 활동내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³³⁾ 한편 후자에 관해서는 재일한인 사회운동을 이끌어 갔던 민족단체의 형성과 활동을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³⁴⁾

둘째,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
- 31) 장박진, 「초기 한일회담(예비-제3차)에서의 재일한국인 문제의 교섭과정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8권제2호(2009.6), pp.1-38; 이성, 「한일회담으로 보는 박정희정권의 재일동포정책: 귀화와 영주권을 중심으로」, 『사람』, 통권33호(2009.6), pp.293-326.
- 32) 신재중, 「한일회담 시기 한국 정부의 재일한인 재산반입 정책의 변화」, 『한국사론』, 통권58호(2012.6), pp.419-470; 이성, 「한일회담(1951-65)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 국적선택론에서 귀화론으로」, 『사람』, 통권45호(2013.6), pp.183-225.
- 33) 정혜경, 「1910-1920년대 동경 한인 노동단체」, 『한국근현대사연구』, 통권1호(1994.8), pp.63-102; 전기호, 「일제하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0권제2호(1997.12), pp.33-71; 정혜경, 「1920년대 일본지역 조선인노동동맹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18호(1998.5), pp.235-289; 김인덕, 「1930년대 진보적 일본노동운동과 재일조선인 국제연대: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사람』, 통권29호(2008.2), pp.25-47.
- 34) 정진성, 「조총련 조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제4호(2005.12), pp.33-62; 김인덕, 「해방 공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결성에 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0호(2006.6), pp.85-123; 지충남, 「재일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연구: 민단, 조총련, 재일한인회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권제1호(2008.4), pp.57-93.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운동 연구와도 관련 있지만 역사적으로 재일한인이 가장 중요시 하고 권리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분야는 교육이었으며, 특히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민족교육은 당위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세대교체 속에서 민족교육 또한 방향성 전환을 요구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시기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의 역사, 현황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한신교육투쟁(阪神教育鬪爭)³⁵⁾을 포함하여 해방직후 이루어진 민족교육 관련 움직임을 검토한 연구,³⁶⁾ 각 지역 조선학교 설립과 발전의 역사를 정리한 연구,³⁷⁾ 재일한인 민족교육 역사 속에서 모국, 일본사회와의 대외연대, 네트워크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³⁸⁾ 등이 있다.

셋째, 재일한인 기업가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³⁹⁾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재일한인 기업가의 ‘성공’ 원인을

-
- 35) 1948년 4월, GHQ와 일본정부의 조선인학교 봉쇄 명령에 저항하여 오사카와 고베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일한인의 민족교육투쟁이다.
- 36) 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운동에 대한 연구: 재일본조선인연맹 제 4, 5회 전체 대회와 한신교육투쟁을 중심으로』, 『사립』, 통권26호(2006.12), pp.173-199; 채영국,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통권37호(2006.6), pp.7-34; 김경해, 『1948년 한신교육투쟁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투쟁』,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5호(2008.12), pp.243-253.
- 37) 김은숙, 『재일본 조선대학교의 설립과 인가에 관한 연구』, 『사립』, 통권34호(2009.10), pp.27-52; 김은혜, 『도쿄 도시레짐과 에다가와 조선학교의 역사』, 『사회와 역사』, 통권85호(2010.3), pp.271-307; 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동경조선중학교의 설립: 『도쿄조선중고급학교 10년사』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통권28호(2012.6), pp.253-284.
- 38) 최영호, 『재일한인 민족교육운동에 나타난 대외연대, 네트워크』,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3호(2007.12), pp.149-185.
- 39) 김태영,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일본문화학보』, 통권27호(2005.11), pp.317-342; 임영언,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연구』, 통권17호(2006.12), pp.87-120; 임영언·이석인, 『재일

다방면에서 분석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조되는 측면이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의 기능 및 역할인데, 이는 2002년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작한 세계한상대회의 시작과도 연관이 있다.⁴⁰⁾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재일한인 기업가 연구, 그 중에서도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세계한상대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의 인적, 물질 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구동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재일한인의 의식과 문화는 특히, 2000년대 들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분야이다. 이 분야의 연구가 가지는 공통점은 바로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이 분화 내지는 다양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권숙인의 연구는 재일한인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들의 민족정체성이 “내부의 차이”를 지닌다는 사실을 지적한 가장 초기의 연구 중 하나이고,⁴¹⁾ 한영혜의 연구는 ‘민족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논지를 펼쳤으며,⁴²⁾ 박용구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하였다.⁴³⁾ 그렇다면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화 내지는 다양화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활발하게

코리안 기업가의 창업유형별 특징 및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제3호 (2006.11), pp.383-402; 임영언,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통권34호(2007.8), pp.635-651; 최석신·임영언,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경영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권제1호(2007.6), pp.47-78; 박재수 외, 『재일한국인의 기업가적 개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동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통권36호(2007.2), pp.35-55.

40) 세계한상대회에 관해서는 세계한상대회 홈페이지(<https://hansang.korean.net/>) 참조.

41) 권숙인, 전계논문, pp.276-312.

42) 한영혜,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민족”의 한계와 새로운 의미』, 『일본연구논총』, 통권27호(2008.6), pp.281-315.

43) 박용구, 『재일코리안의 분화하는 정체성에 대한 실증 분석』, 『일본연구』, 통권40호 (2009.7), pp.3-23.

연구되어 온 내용은 국적과 세대에 따른 분화 내지는 다양화의 양상으로, 이 두 요소는 지속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⁴⁴⁾

한편,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장 최신의 연구동향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민족축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⁴⁵⁾ 민족축제는 재일한인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는 문화 활동의 하나로, 변화하는 민족정체성 나아가 일본사회에서의 재일한인의 자리매김의 변용이 나타난다. 민족축제는 재일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스스로의 민족정체성의 표출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과거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표출은 보다 투쟁적이고 ‘하드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졌으나, 일본사회의 국제화와 재일한인의 세대교체 속에서 ‘소프트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축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 부활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 관련 연구도 증가하

44) 김영, 『조선적으로 산다는 것』, 『여성과 평화』, 통권3호(2003.12), pp.141-162; 장인성, 전개논문, pp.27-49; 김현선, 『국적과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조선·한국적 유지자의 삶과 의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83호(2009.9), pp.313-341; 김현선, 『재일의 귀화와 아이덴티티』, 『사회와 역사』, 통권91호(2011.9), pp.293-323; 임영언·김태영,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통권36호(2008.2), pp.393-415; 이석인·임영언,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요인과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5권제1호(2011.3), pp.525-547; 김성수·남근우,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별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 서일본지역 재일동포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제1호(2014.3), pp.29-52.

45) 박수경, 『재일코리안축제와 마당극의 의의: 生野民族文化祭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통권45호(2010.5), pp.269-288; 유기준, 『시텐노지왓소와 재일코리안 문화의 역할 연구』, 『일본문화학보』, 통권44호(2010.2), pp.403-423; 황해경,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통권46호(2010.8), pp.471-492; 김현선, 『재일 밀집지역과 축제, 아이덴티티: 오사카 ‘통일마당 이쿠노’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제1호(2011.3), pp.1-30; 손미경, 『오사카 원코리아 페스티벌: 통일운동에서 다문화공생의 장으로』, 『재외한인연구』, 통권23호(2011.2), pp.309-348; 전진호, 『원코리아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통권30호(2018.8), pp.151-174.

였다. 같은 맥락에서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난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표출 방법과 내용을 검토하는 연구도 존재한다.⁴⁶⁾

IV. 재일한인연구와 해석: 새로운 과제모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재일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다룬 연구는 어느 정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동향은 정리하였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심도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대상을 찾지 못해서라고 보인다. 1990년대 이후 국내학술지에 출판된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의 재일한인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동향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재일한인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 바꾸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로서 재일한인이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특징을 분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즉, 재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 방법, 관점에서 이루어져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일한인연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재일한인연구의 심화를 위해서 새로운 과제도출은

46) 정순희, 「재일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 ‘GO’에 표출된 탈민족적 관점에 주목하여」, 『한국문화연구』, 통권8호(2005.6), pp.185-211; 황봉모, 「재일한국인의 연애와 정체성: 가네시로 카즈키의 『GO』, 『일본연구』, 통권31호(2008.4), pp.175-199; 신명직, 「재일코리안과 다국가 시민권: 영화 “피와 뼈”, “디어 평양”,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통권56호(2013.7), pp.37-82; 이지연, 「다큐 영화 <우리학교>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4권제2호(2013.10), pp.23-49.

필수 불가결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해역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서 재일한인이 지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대상을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해역은 국민국가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바다와 관련된 인간 활동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육지와 국민국가 중심의 분석 시각을 상대화 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디아스포라와 관련하여 해역에서 펼쳐지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다양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디아스포라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실질적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시작하는 교류 네트워크에 주목하도록 하겠다. 이 두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재일한인의 삶이 가지는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디아스포라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네트워크의 고찰이 재일한인연구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재일한인 연구는 이들의 삶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한반도로부터 이동하여 일본에 도착한 이후의 ‘정주’ 국면에 주목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이동성(mobility)이라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동은 정주를 향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해역을 통한 이동은 국가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이러한 규제는 밀항 등을 통해 ‘불법’으로 극복할 수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의 이동은 국적, 민족, 계층 등의 구분짓기를 통하여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 모국에서 정주국으로 또는 정주국에서 모국으로 이동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동 과정은 원활하였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등 이동의 구조와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재일한인의 이동성에 주목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모국 귀환 과정을 분석한 연구,⁴⁷⁾ 해방이후 제주도에서 일본으로의 밀항 양상을 통해 재일한인의 삶을 살펴본 연구,⁴⁸⁾ 이른바 북송 문제를 분석한 연구⁴⁹⁾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재일한인의 다양한 이동 과정과 그 의미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분석 대상이 제한적이다. 시기가 해방이후에 국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재일한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수단과 경로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에 해방이후로 국한되어 있는 분석 시기를 해방이전까지 확대해야 하겠다.⁵⁰⁾ 재일한인 형성의 원형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 시기의 이동 과정과 의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은 피식민지자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치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피식민자가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

47) 최영호, 『해방 직후의 재일한국인의 본국 귀환, 그 과정과 통제 구조』, 『한일관계사 연구』, 통권4호(1995.6), pp.99-135; 채영국, 『해방 후 재일한인의 지위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통권25호(2003.6), pp.83-103;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1호(2006.12), pp.243-287.

48) 후지나카 다케시, 『재일 제주인과 ‘밀항’: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4.3과 역사』, 통권10호(2010.12), pp.153-176; 조경희, 『불안정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사회와 역사』, 통권106호(2015.6), pp.39-75.

49) 박정진,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일본인의 “귀국협력”』, 『사회와 역사』, 통권91호(2011.9), pp.31-60; 테사 모리 스즈키, 『북한행 엑서더스를 다시 생각한다. 재일조선인 귀국문제』, 『일본비평』, 통권4호(2011.2), pp.186-203.

50) 해방이전 재일한인의 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재일한인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일부’ 언급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국외의 재일한인연구를 포함하여 연구사 정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에 대한 고찰인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재일한인 1세의 삶에 대한 자서전, 구술 자료가 점차 축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 속에서 이동 경험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어 재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재일한인의 이동성에 주목한 기존 연구는 정작 이들의 이동을 가능케 한 이동 수단과 경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일제강점기의 기선운항과 관련한 역사연구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으나, 기선운항을 인구이동과 연관 짓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이 시기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부관(釜關)연락선⁵¹⁾에 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⁵²⁾ 일부 존재하는 부관연락선을 통한 인구이동을 분석한 연구들도 대부분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일본인에 주목할 뿐 재일한인의 존재를 시야에 넣은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료의 발굴과 재구성을 통해 부관연락선을 통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의 양상과 특징을 치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일한인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잃어버린 고리’를 이을 필요가 있겠다. 한편, 1930년대 이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항로가 늘어남에 따라 재일한인의 형성을 이끌어 낸 물리적인 네트워크도 다변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시작하는 교류 네트워크가 재일한인연구의 동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의 재일한인연구가 전반적으로 이들을 국민국가를 넘나드는 삶을 영위하는 디아스포라로 자리매김하려는 경향은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해

51)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를 운항했던 정기선.

52) 김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통권29호(2013.5), pp.1-33.

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어디까지나 국민국가의 경계를 의식하고 전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⁵³⁾ 즉, 재일한인의 초국가성(transnationality)에 대하여 주목하는 작업은 국민국가라는 분석 단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양자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를 기본단위로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한 디아스포라가 지닌 구체성, 역사성, 다양성, 실천성을 묻혀버리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공간에 주목하여야 한다.⁵⁴⁾ 디아스포라가 정주국의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이들의 삶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결국 정체성, 그리고 모국 및 정주국과의 네트워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적, 그리고 현재적 특징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삼각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일한인연구의 축적 속에서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왔으며, 가와사키(川崎)와 오사카(大阪)가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었다. 가와사키의 경우는 지방정부와의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재일한인 커뮤니티가 발전해 온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눈에 띈다.⁵⁵⁾ 한편, 오사카의 경우는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자조적인 활동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⁵⁶⁾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지역 이외의 지역

53) 이상봉,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8호(2010.6), p.119.

54) 이상봉, 상계논문.

55) 이시재, 전계논문, pp.21-44; 방광석, 『1920~30년대 간토지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지역사회』, 『사총』, 통권68호(2009.3), pp.127-149; 이현철·조현미,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공간으로서 교회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가와사키시 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7권제2호(2013.12), pp.228-253; 이상봉, 전계논문, pp.63-95.

56) 정혜경, 『1930년대 초기 오사카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호(2001.2), pp.71-112; 박수경, 전계논문, pp.269-288; 김현선, 전계논문, pp.1-30; 이상봉,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한국민족문화』, 통권41호(2011.11), pp.231-261.

에 주목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가와사키와 오사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은 이유는 두 지역 모두 재일한인 집주지역이라 이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의 모습이 응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재일한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를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관련 연구는 국내 연구자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일한인 집주지역과 그 주변 도시 사례에 국한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일한인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시작하는 교류 네트워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 같은 지역은 흥미롭다.⁵⁷⁾ 2016년 말 현재 후쿠오카에는 약 15,000명의 재일한인이 거주한다.⁵⁸⁾ 이는 오사카의 약 6분의 1 정도의 인구로 후쿠오카는 재일한인 집주지역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른바 한인 타운과 같은 곳은 없다. 하지만 후쿠오카의 재일한인은 기타 지역의 재일한인과는 다른 고유의 역사를 지니며, 이는 디아스포라적 삶의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후쿠오카의 재일한인에게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본 패전 후 한반도로 돌아가기 위해 하카타(博多)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카타항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한반도, 구체적으로는 부산으로 건너가기 위한 배를 기다렸지만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반도로의 귀환이 좌절된 후 재일한인은 일단 하카타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였다. 이미 커뮤니티가 어

57) 규슈 지역이 언급되는 재일한인연구로는 오무라(大村)수용소와 관련된 것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밀항과 관련하여 수용소라는 특유의 공간에 주목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역 중심의 연구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별도의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하겠다.

58)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홈페이지, {인용 2019.4.15}

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돈벌이’가 쉬운 지역, 즉, 오사카나 가와사키 같은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쿠오카의 재일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귀환 의지를 오랫동안 보였던 소수의 인원이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한 채 하카타항 근처에 머무르게 되면서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집주지역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일본사회와 관계를 맺어야 했고, 한편으로는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고향과의 ‘비공식적’ 교류도 빈번했다. 이러한 후쿠오카 지역 재일한인의 고유의 역사는 디아스포라로서 재일한인이 지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V.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재일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디아스포라와 해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크게 발전한 국내의 재일한인연구는 특히, 2000년대 들어 이들을 디아스포라로 자리매김하고 초국가성을 중심으로 삶의 양상을 살펴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려는 시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일한인연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기 위해 해역에 주목하였다. 해역에 주목한 결과, 디아스포라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실질적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시작하는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재일한인이 지니는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추후에는 시기를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융합하며 국외의 재일한인연구를 종합하여 디아스포

라와 해역 관점에서 연구동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K C I

참고문헌

- 권숙인, 『귀속과 정체성의 분화와 통합: 변모하는 재일한인사회의 지평』, 『[한일 공동연구총서 17] 한·일 사회의 중심과 주변』(2007.12).
- 김경득, 『정주외국인과 지방참정권: 재일동포에 있어서 국적과 지방참정권이란』, 『공익과 인권』, 제2권제1호(2005.2), pp.1-14.
- 김경혜, 『1948년 한신교육투쟁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투쟁』,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5호(2008.12), pp.243-253.
- 김광열,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 1991년 “특별영주”제도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6호(2004.6), pp.37-91.
- 김부찬,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 제13권제1호(2007.2), pp.1-31.
- 김성수·남근우,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별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 서일본지역 재일동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제1호(2014.3), pp.29-52.
- 김성호, 『재일코리안 지방참정권 문제의 현상과 전망』, 『평화연구』, 통권8호(1999.3), pp.37-53.
- 김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통권29호(2013.5), pp.1-33.
- 김영, 『조선적으로 산다는 것』, 『여성과 평화』, 통권3호(2003.12), pp.141-162; 장인성, 전개논문, pp.27-49.
- 김은숙, 『재일본 조선대학교의 설립과 인가에 관한 연구』, 『사림』, 통권34호(2009.10), pp.27-52.
- 김은혜, 『도쿄 도시레짐과 에다가와 조선학교의 역사』, 『사회와 역사』, 통권85호(2010.3), pp.271-307.
- 김인덕, 『해방 공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결성에 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0호(2006.6), pp.85-123.
- _____,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운동에 대한 연구: 재일본조선인연맹 제 4, 5회 전체대회와 한신교육투쟁을 중심으로』, 『사림』, 통권26호(2006.12), pp.173-199

- _____, 『1930년대 진보적 일본노동운동과 재일조선인 국제연대: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사림』, 통권29호(2008.2), pp.25-47.
- _____,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동경조선중학교의 설립: 『도쿄조선중고급학교 10년사』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통권28호(2012.6), pp.253-284.
- 김진환, 『재일조선인 정체성 연구 현황과 과제』, 『한민족문화연구』, 통권39호(2012.2), pp.373-404.
- 김태기, 『일본 민주당과 재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9호(2010.12), 235-277.
- 김태영,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일본문화학보』, 통권27호(2005.11), pp.317-342.
- 김현선, 『국적과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조선·한국적 유지자의 삶과 의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83호(2009.9), pp.313-341.
- _____, 『재일 밀집지역과 축제, 아이덴티티: 오사카 ‘통일마당 이쿠노’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제1호(2011.3), pp.1-30.
- _____, 『재일의 귀화와 아이덴티티』, 『사회와 역사』, 통권91호(2011.9), pp.293-323.
- 박병윤, 『남북의 UN 동시가입과 재일동포의 역할: 『91년 문제』의 총괄과 분단극복을 위하여』, 『재외한인연구』, 제2권제1호(1992.12), pp.79-116.
- 박수경, 『재일코리안축제와 마당극의 의의: 生野民族文化祭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통권45호(2010.5), pp.269-288.
- 박정진, 『재일조선인 “복숭문제”와 일본인의 “귀국협력”』, 『사회와 역사』, 통권91호(2011.9), pp.31-60.
- 박용구, 『재일코리안의 분화하는 정체성에 대한 실증 분석』, 『일본연구』, 통권40호(2009.7), pp.3-23.
- 박재수 외, 『재일한국인의 기업가적 개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동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통권36호(2007.2), pp.35-55.
- 방광식, 『1920~30년대 간토지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지역사회』, 『사총』, 통권68호(2009.3), pp.127-149.
- 손미경, 『오사카 원코리아 페스티벌: 통일운동에서 다문화공생의 장으로』, 『재외한인연구』, 통권23호(2011.2), pp.309-348.

-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통권14호 (2016.2), pp.22-49.
- 신명직, 『재일코리안과 다국가 시민권: 영화 “피와 뼈”, “디어 평양”,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통권56호(2013.7), pp.37-82.
- 신재중, 『한일회담 시기 한국 정부의 재일한인 재산반입 정책의 변화』, 『한국사론』, 통권58호(2012.6), pp.419-470.
- 유기준, 『시텐노지왓소와 재일코리안 문화의 역할 연구』, 『일본문화학보』, 통권 44호(2010.2), pp.403-423.
- 羽田正, 조영현·정순일 역, 『바다에서 본 역사 : 개방, 경합, 공생 : 동아시아 700년의 문명 교류사』, 서울: 민음사, 2018.
- 이광규, 『재일한인과 지문제도』, 『사회와 역사』, 통권23호(1990.8), pp.111-131.
- _____,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한일 민족문제연구』, 통권18호(2010.6), pp. 107-146.
- _____,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한국민족문화』, 통권41호(2011.11), pp.231-261.
- _____, 『일본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 2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민족문화』, 통권65호(2017.11), pp.63-95.
- 이석인·임영연,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요인과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5권제1호(2011.3), pp.525-547.
- 이성, 『한일회담으로 보는 박정희정권의 재일동포정책: 귀화와 영주권을 중심으로』, 『사림』, 통권33호(2009.6), pp.293-326.
- _____, 『한일회담(1951-65)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 국적선택론에서 귀화론으로』, 『사림』, 통권45호(2013.6), pp.183-225.
- 이시재, 『일본의 외국인 지방자치 참가문제의 연구: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의 성립 및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2003.3), pp.21-44.
- 이지연, 『다큐 영화 <우리학교>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4권제2호(2013.10), pp.23-49.
- 이한정, 『“자이니치” 담론과 아이덴티티』, 『일본연구』, 통권17호(2012.6), pp.363-388.

- 이현철·조현미,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공간으로서 교회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가와사키시 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7권제2호 (2013.12), pp.228-253.
- 임영언,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연구』, 통권17호(2006.12), pp.87-120.
- _____,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통권34호(2007.8), pp.635-651.
- 임영언·김태영,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통권36호(2008.2), pp.393-415.
- _____,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자원으로서 연구사 고찰 : 1945년 이후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통권50호 (2011.5), pp. 353-368.
- 임영언·이석인,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창업유형별 특징 및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제3호(2006.11), pp.383-402.
- 장박진, 『초기 한일회담(예비~제3차)에서의 재일한국인 문제의 교섭과정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8권제2호(2009.6), pp.1-38.
- 장인성,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제12권제4호 (2003.12), pp.27-49.
-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홈페이지, {인용 2019.4.15}
- 전기호, 『일제하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0권제2호(1997.12), pp.33-71.
- 전진호, 『원코리아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통권30호(2018.8), pp.151-174.
- 정병호, 『해외한인사회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일한인사회』, 『민족과 문화』 통권4호(1996.12), pp.106-144.
- 정순희, 『재일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 ‘GO’에 표출된 탈민족적 관점에 주목하여』, 『한국문화연구』, 통권8호(2005.6), pp.185-211.
- 정영미·이경규,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 연구동향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통권62호(2018.12), pp.415-437.
- 정인섭,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그 운영의 25년의 회고』, 『재외한인연구』, 제

- 1권제1호(1990.12), pp.17-34.
- 정진성, 『조총련 조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제4호(2005.12), pp.33-62.
- _____, 『‘재일동포’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통권7호(2012.8), pp.258-287.
- 정혜경, 『1910-1920년대 동경 한인 노동단체』, 『한국근현대사연구』, 통권1호(1994.8), pp.63-102.
- _____, 『1920년대 일본지역 조선인노동동맹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18호(1998.5), pp.235-289.
- _____, 『1930년대 초기 오사카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호(2001.2), pp.71-112.
- 조경희, 『불안정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사회와 역사』, 통권106호(2015.6), pp.39-75.
- 지충남, 『재일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연구: 민단, 조총련, 재일한인회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권제1호(2008.4), pp.57-93.
- 채영국, 『해방 후 재일한인의 지위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통권25호(2003.6), pp.83-103
- _____,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통권37호(2006.6), pp.7-34.
- 최석신·임영언, 『재일코리아 기업가의 경영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권제1호(2007.6), pp.47-78.
- 최영호, 『해방 직후의 재일한국인의 본국 귀환, 그 과정과 통제 구조』, 『한일관계사연구』, 통권4호(1995.6), pp.99-135.
- _____, 『일본의 패전과 부관련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1호(2006.12), pp.243-287.
- _____, 『재일한인 민족교육운동에 나타난 대외연대, 네트워크』, 『한일민족문제연구』, 통권13호(2007.12), pp.149-185.
- 테사 모리 스키, 『북한행 엑서더스를 다시 생각한다: 재일조선인 귀국문제』, 『일본비평』, 통권4호(2011.2), pp.186-203.
- 한승미, 『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민족시민(ethnic citizen)”: 동경도 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에의 함의』, 『한

국문화인류학』, 제43권제1호(2010.1), pp.263-304.

한영혜,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민족”의 한계와 새로운 의미』, 『일본연구논총』, 통권27호(2008.6), pp.281-315.

황봉모, 『재일한국인의 연애와 정체성: 가네시로 카즈키의 『GO』』, 『일본연구』, 통권31호(2008.4), pp.175-199.

황혜경,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통권46호(2010.8), pp.471-492.

후지나카 다케시, 『재일 제주인과 ‘밀항’: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4.3과 역사』, 통권10호(2010.12), pp.153-176.

家島彦一, 『海域から見た歴史』,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Andreas Wimmer and Nina Glick Sc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7, No.3(September 2003), pp.576-610.

James Clifford,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Vol.9, No.3(August 1994), pp.302-338.

【Abstract】

Since the 1990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present the trends and tasks of studies on Koreans in Japan with the growth of these studies. However, in most cases, in-depth tasks were not presen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seek out future studies on Koreans in Japan through the diaspora and sea region concepts. The sea region can provide the subject and method of novel and detailed analysis to understand the transnationality of diaspora Koreans in Japan.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diaspora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transnational network expanding from the sea region is a physical network that enabled the movement of the diaspora and an exchange network that begins in the practical home region. Through this study,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diasporic properties exhibited by Koreans in Japan will be possible from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 **Key words** : Koreans in Japan, Diaspora, Sea Region, Transnationality, Networks

논문접수일	2019년 4월 15일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5월 15일